

나주 아동병원, 소아 코로나 전담 입원치료 앞장

자체 예산 들여 입원실에 음압치료장비 4대 설치

지난 10일부터 12세 이하 소아 진료...지역민 호응

일선 병원들이 코로나19 소아 감염자 치료 센터 운영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의 한 아동병원이 자처해서 전담 치료 센터 운영을 맡아 귀감이 되고 있다.

11일 나주시보건소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빛가람동)에 소재한 나주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이 전일부터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를 위한 전담 치료에 나서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소아에 대한 대면진료와 확진 판정시 입원치료를 전담한다.

여기에 백신 미접종 소아들이 완벽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장비도 갖췄다.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은 자체 예산을 들여 원내 5층 입원실에 음압치료 장비 4대를 설치

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소아 확진자를 위한 전담 진료기관이 문을 열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간 나주지역 소아 확진자들의 경우 전담 외래진료 기관이 없어 대면 진료와 입원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나주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의 평일 대면 진료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다.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자발적 전담 치료 센터 운영으로 부모들의 근심을 덜고 아동 건강 증진에 기여해준 병원 의료진의 봉사정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나주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이 자처해서 코로나19 소아 전담 치료센터 운영을 맡아 귀감이 되고 있다.

곡성군, 2023년 예산편성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접수

곡성군이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심의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곡성군에서는 올해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옥곡면 옥곡도서관 앞 벤치 설치(200만원), ▲검면 남양마을 역사 탐방로 조성(1,000만원) 등 총 13건, 5억 2,4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는 2021년도보다 3건, 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 접수는 3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6일 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와 달리 제안사업 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안을 공모한다.

먼저 ▲읍면자치형은 사업의 물리적 범위나 수혜 범위가 특정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제안된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읍면 지역회의를 통해 우선 순위와 반영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군정참여형은 곡성군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유형이다. 사업 평가 및 심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제안할 수 있는 분야는 주제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공동체 활성화,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예산절감 방안, ▲기타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열린군정-예산서 공개-주민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우편(곡성을 군청로 50, 곡성군 기획실) 또는 이메일(ojiri0309@korea.kr)을 통해 곡성군 기획실에 제안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요구하거나 단순 진정, 민원성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된다.

곡성군은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7월경 실무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8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영계획을 심의해 선정된 사업들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군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재정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군민들께서 활발하게 참여하실수록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화순 관광 기념품 전국 공모' 개최

화순의 특색 담은 관광 기념품 발굴...6월 17일까지 접수

화순군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 기념품 발굴을 위해 3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2년 화순 관광 기념품 전국 공모'를 개최한다.

이번 '2022년 화순 관광 기념품 전국 공모'

공모대상은 화순의 역사, 문화, 관광, 특산물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가치를 담고 있는 ▲공예품 ▲공산품 ▲가공품(식품) 등 관광 기념품이다.

출품작은 가로 30cm*세로 30cm*높이

30cm 이내이고, 부가세 포함 판매(예정)가가 5만 원 이하로 계속해서 제작·생산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지역과 상관없이 개인 또는 업체 모두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나 업체는 출품작과 제출 서류를 구비해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화순군정 관광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250만 원), 우수상 2점(각 100만 원), 장려상 2점(각 50

만 원), 입선 5점(각 3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2년 화순 관광 기념품 전국 공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만의 특색을 반영한 독창적인 관광 기념품을 선정해 화순 관광 홍보마케팅에 널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국내 최대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임시개원

구례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섬진강 수달생태공원을 11일 임시개원했다.

섬진강 수달생태공원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에 대한 다양한 생태정보를 제공하고 59종의 다양한 식물을 학습하고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군은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연 생태체험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했다.

수달생태공원은 총면적 104,364㎡에 전시관, 수달사,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흥매화산책로, 전망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500여 그루로 조성된 흥매화 산책로는 산수유꽃과 더불어 구례의 대표적인 봄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내 생태화원에 설치된 경관 조명은 구례만의 특색 있는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 군민생활체육센터 '담빛헬스장' 준공

내일 개관 예정...전문 헬스트레이너 배치로 군민의 기초체력 관리



담양군이 담빛수영장과 연계한 담빛헬스장을 준공하고 11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정오 군의회 의장, 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담양군 수영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담양 군민생활체육센터의 일환으로 조성된 담빛헬스장은 지난 2020년 자연친화적 건축환경을 기반으로 총 공사비 19억 원을 들여 올해 2월에 완공됐다.

총 2층으로 이뤄진 담빛헬스장은 1층에 230㎡ 규모의 헬스장과 준비운동실, 안내실, 샤워실, 화장실 등이 위치해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실, 휴게공간이 마련됐다.

헬스장에는 올바른 운동방법과 습관 교정을 도와줄 전문트레이너와 런닝머신 외 25종, 37대의 운동기구를 배치해 군민 기초체력 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부터 개장할 계획이며 이용요금은 월 4만원이다. 수영장과 함께 이용할 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 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건설
- 포스코케미칼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ICT
- 포스코강관
- 포스코SPS
- 포스코엔텍
- 포스코O&M
- 포스코기술투자
- 포스코티미남
- 포스코A&C